

청년 1인 가구의 주거환경요인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Housing Environment on Quality of Life of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김 용 욱 1) 김 새 힘 2)
Kim, Yongwook Kim, SaeHim

요약

1인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비율이 35.9%로 전체 1인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대부분 전체 1인 가구 또는 노인 1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1인 가구를 청년층과 비청년층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의 매개를 통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설문자 중 1인 가구 3,912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측정항목은 성별, 소득 등의 일반 사항과 대중교통 요인, 안전 요인, 이웃요인, 지역환경요인, 주거만족도, 삶의만족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방법은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각 요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주거환경 요인들은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 변수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주거환경 요인들이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셋째, 청년층과 비청년층 두 집단 모두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서울시는 1인 가구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주거 환경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주거만족도, 삶의만족도, 1인가구

Keyword : Residential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Single-person

I. 서론

1)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주 저자 : kyo355@hanyang.ac.kr)

2)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과정(공 저자 : kshim9146@hanyang.ac.kr)

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고령화, 혼인율 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박미선·이재춘, 2018).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0).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되며 청년층의 비율이 전체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통계청, 2020). 하지만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낮은 편이다(이현주 외, 2020). 이렇다 보니 청년 1인 가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으며 주거만족도 또한 가장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2020).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전체에 대한 연구와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에 비해 청년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인 가구는 연령별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다르며 이에 따른 주거만족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김영주·곽인경, 2020). 따라서 1인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청년층과 비청년층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주거만족도의 매개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 및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는 일반 가구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침 및 취사 등의 생계를 영위하는 가구를 말한다(강소현·박정윤, 2020). 1인 가구는 기러기가족, 주말 부부 등 배우자가 존재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으면서 주거가 독립되어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별로 정의는 각 국가와 사회마다 상이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복지로 드랩에서 제시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면서 독립가구를 형성한 가구로 정의한다.

2)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주거는 인간에게 필수요소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김진현·김형주, 2017).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행복한 삶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만족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로써 그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 생활의 만족, 주거환경 등에 따라 주거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정병호, 2015). 즉 주거만족도는 거주자의 특징, 주거환경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박진호 외, 2021; 정기성·김효정, 2018).

주거만족도는 주거의 물리적인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태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에서 주거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박성복, 2011),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황광선, 2013). 더 나아가 주거환경요인과 주거만족도는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이효재 외, 1979), 이는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많은 시간을 주택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택내에서 취미활동과 휴식 등을 통해 일상을 마무리하는 공간이자 내일을 준비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은 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임근식, 2012).

2. 선행연구 검토

1) 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이희연 외(2011)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성장패턴과 불균등한 공간분포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 시 1인 가구의 실질적인 특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진현·김형주(2017)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경제, 입지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책 강구를 주장했다. 조미현·송재민(2020)은 1인 가구가 유입되는 지역을 요인, 연령별 세분화하여 비교한 분석을 통해 집단의 특성에 따라 입지 분포에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했고 주택공급정책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일자리와의 연계, 대중교통과 연계 등 1인 가구의 주거이동 특성을 반영한 정책공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조주현·김주원(2010)은 1인 가구의 주택 선호 요인에서 청년층의 경우 입지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반면 노년층의 경우 물리적 요인을 선호하여 연령별 주택 선호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1인 가구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1인 가구 내에서도 연령별, 집단별로 선호하는 요인 및 만족도 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를 고려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3. 연구의 차별성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청년층과 비청년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두 집단 간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청년층의 기준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한 청년 정책 대상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설정하여 현재 추진중인 정책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주거환경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분석의 틀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에 따른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층과 비청년층으로 나누어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0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자료이며 조사기간은 2020년 9월부터 약 한달간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인 가구를 추출했고 청년층의 경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추출하였으며 결측치는 제외 하였다. 실질적인 분석에 이용된 표본수는 청년층 2,047명 비청년층 1,865명이다.

2. 연구모형 및 변수설명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며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잠재변수인 대중교통요인, 이웃관계요인, 지역환경요인, 치안 및 방법요인을 선정하였고 각 변수들의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선정

구분		변수정의
매개 변수	주거환경 만족도	전반적인 주거만족도(5점 척도)

		구분	변수정의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5점 척도)
	개인 특성	연령	나이(세)
직업		1.사무직·전문직 2.기능기술직 3.판매서비스직 4.학생 5.기타	
주택 특성	주택형태	1.단독주택 2.아파트 3.다세대/연립/빌라 4.기타	
	점유형태	1.자가 2.전세 3.월세 4.기타	
	주택사용면적	1.5평미만 2.5~15평 3.15~25평 4.25~35평 5.35평이상	
독립 변수	대중교통요인	버스	버스만족도(5점 척도)
		지하철	지하철만족도(5점 척도)
	이웃관계요인	이웃친밀도1	이웃과 친밀함(5점 척도)
		이웃친밀도2	이웃과 소통(5점 척도)
	지역환경요인	대기오염	대기오염만족도(5점 척도)
		소음및진동	소음및진동만족도(5점 척도)
		녹지환경	녹지환경만족도(5점 척도)
	치안및방법요인	치안및방법1	야간 동네 보행 안전도(5점 척도)
		치안및방법2	야간 주거에 대한 안전도(5점 척도)

대중교통 요인은 대중교통 만족도를 확인하는 잠재변수이며 측정항목으로는 버스 만족도, 지하철 만족도 이다. 이웃관계 요인은 이웃과의 교류를 확인하는 잠재변수이며 측정항목으로는 이웃 친밀도1(이웃과의 친밀함), 이웃친밀도2(이웃과의 소통)이다. 지역환경 요인은 동네 대기오염, 소음, 녹지환경 만족도가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잠재변수이다. 치안 및 방법 요인은 동네 안전도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잠재변수이며 측정항목은 치안 및 방법1(야간 동네 보행 안전)과 치안 및 방법2(야간 주거 안전도)이다. 매개 변수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이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확인하는 변수이다. 모든 항목은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3. 분석방법

청년층과 비청년층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2.0을 적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사용된 표본 중 청년층의 연령은 평균 31.6세이며 직업은 사무직·전문직, 판매서비스직, 학생, 기타, 기능기술직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형태는 다세대/연립주택/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 기타 순이며 주택 사용면적은 평균 5~15평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표 2. 기술통계

구분		청년 1인가구 평균/빈도(s. d./%)	비청년 1인가구 평균/빈도(s. d./%)	t		
매개 변수	주거환경 만족도	3.34(0.95)	3.51(0.86)	-8.223***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3.23(0.78)	3.27(0.73)	-2.517*		
독립 변수	개인 특성	연령		31.60(4.81)	54.08(9.90)	-
		직업	사무직·전문직	1581(77.2%)	663(35.5%)	-
			기능기술직	30(1.5%)	157(8.4%)	
			판매서비스직	286(14%)	684(36.7%)	
			학생	97(4.7%)	0(0%)	
			기타	53(2.6%)	361(19.4%)	
	주택 특성	주택형태	단독주택	646(31.6%)	643(34.5%)	-
			아파트	319(15.6%)	462(24.8%)	
			다세대/연립/빌라	1070(52.3%)	743(39.8%)	
			기타	12(0.6%)	17(0.9%)	
		점유형태	자가	274(13.4%)	736(39.5%)	-
			전세	875(42.7%)	659(35.35%)	
			월세	882(43.1%)	457(24.5%)	
			기타	16(0.8%)	13(0.7%)	
		주택사용면적		2.29(0.79)	2.76(0.84)	-26.802***
		주거 특성	대중교통요인	버스	4.03(0.84)	3.90(0.78)
	지하철			4.07(0.87)	3.92(0.87)	7.728***
이웃관계요인	이웃친밀도1		2.05(0.99)	2.74(1.013)	-31.571***	
	이웃친밀도2		1.86(0.98)	2.45(1.015)	-26.968***	
지역환경요인	대기오염		2.55(0.90)	2.77(0.88)	-10.809***	
	소음및진동		2.55(0.94)	2.82(0.90)	-13.151***	

구분		청년 1인가구 평균/빈도(s. d./%)	비청년 1인가구 평균/빈도(s. d./%)	t
	녹거환경	3.04(0.91)	3.19(0.87)	-7.607***
	치안및방법요인			
	치안및방법1	3.46(1.04)	3.61(0.96)	-6.683***
	치안및방법2	3.04(1.14)	3.35(1.035)	-12.315***

2. 주거환경 특성과 주거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영향관계 분석

1) 모형 적합도 검증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적합도 기준값은 SRMR 0.1 이하, GFI 0.9 이상, AGFI 0.85 이상, IFI 0.9 이상, CFI 0.9이상 RMSEA 0.1 이하이다(강현철, 2013; 홍세희, 2000). 적합도 검증 결과 청년층, 비청년층 모형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청년1인가구 모형적합도

구분	기준값	값
SRMR	0.1 이하	0.052
GFI	0.9 이상	0.965
AGFI	0.85 이상	0.945
IFI	0.9 이상	0.933
CFI	0.9 이상	0.933
RMSEA	0.1 이하	0.053

표 4. 비청년1인가구 모형적합도

구분	기준값	값
SRMR	0.1 이하	0.079
GFI	0.9 이상	0.950
AGFI	0.85 이상	0.918
IFI	0.9 이상	0.915
CFI	0.9 이상	0.914
RMSEA	0.1 이하	0.068

2) 영향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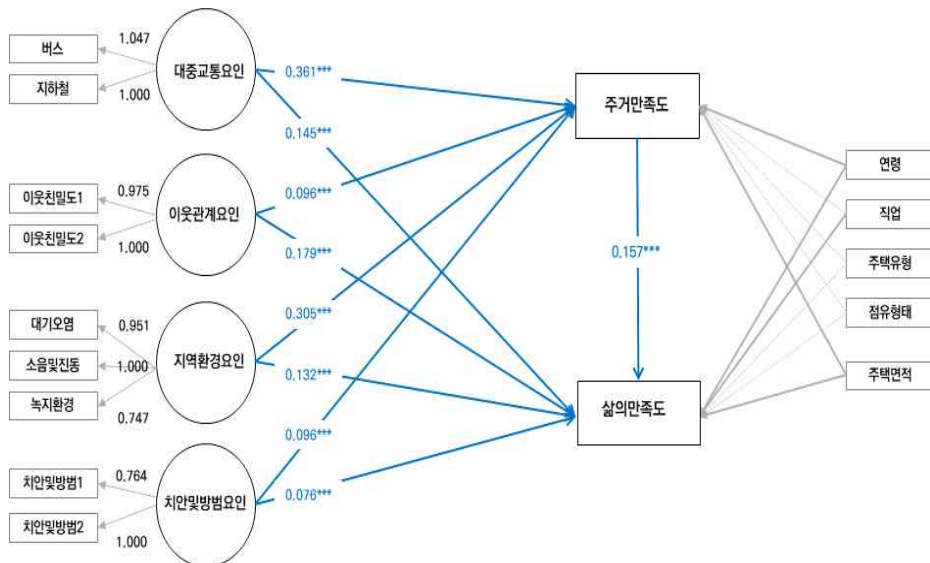
청년층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영향 관계 분석은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와 C.R.(t-value)를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청년1인가구 경로계수 분석결과

경로	경로계수	S.E.	C.R.(t-value)
대중교통요인 → 주거만족도	0.361	0.037	9.631***
이웃관계요인 → 주거만족도	0.096	0.027	3.556***
지역환경요인 → 주거만족도	0.305	0.039	7.871***
치안및방법요인 → 주거만족도	0.096	0.019	5.026***
대중교통요인 → 삶의만족도	0.145	0.030	4.893***
이웃관계요인 → 삶의만족도	0.179	0.022	8.216***
지역환경요인 → 삶의만족도	0.132	0.031	4.240***
치안및방법요인 → 삶의만족도	0.076	0.015	4.963***
주거만족도 → 삶의만족도	0.157	0.018	8.526***

***p<0.001

청년층 모형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지역환경, 치안 및 방법, 이웃관계 순서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관계, 지역환경, 대중교통, 치안 및 방법 순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만족도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상승은 삶의 질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림 1> 청년1인가구 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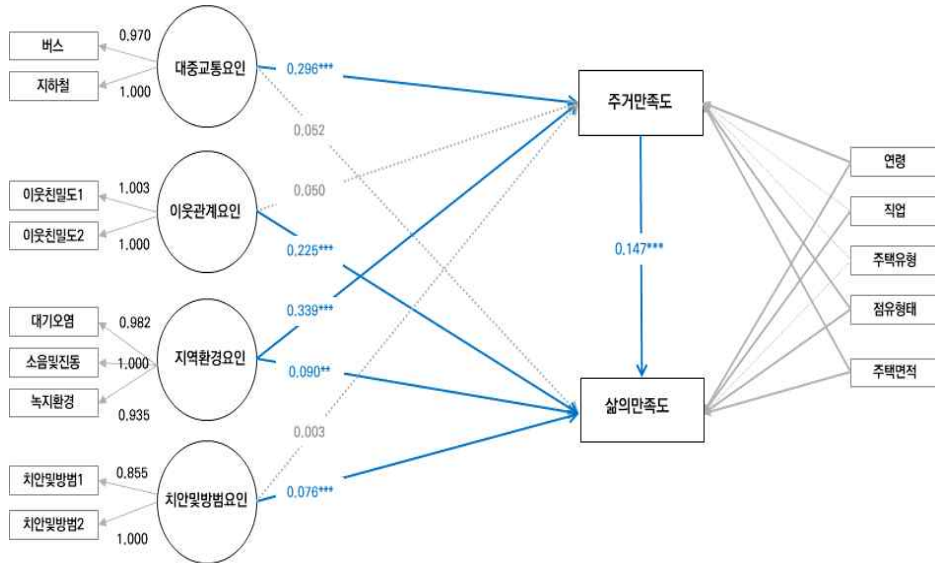
비청년층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영향 관계 분석도 마찬가지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와 C.R.(t-value)를 통해 실시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비청년1인가구 경로계수 분석결과

경로	경로 계수	S.E.	C.R.(t-value)
대중교통요인 → 주거만족도	0.296	0.041	7.291***
이웃관계요인 → 주거만족도	0.050	0.025	1.984*
지역환경요인 → 주거만족도	0.339	0.041	8.249***
치안및방법요인 → 주거만족도	0.003	0.021	0.121
대중교통요인 → 삶의만족도	0.052	0.032	1.609
이웃관계요인 → 삶의만족도	0.225	0.021	10.786***
지역환경요인 → 삶의만족도	0.090	0.033	2.704**
치안및방법요인 → 삶의만족도	0.068	0.018	3.785***
주거만족도 → 삶의만족도	0.147	0.020	7.466***

***p<0.001

비청년층 모형에서는 대중교통, 지역환경만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삶의 만족도에는 이웃관계, 지역환경, 치안 및 방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환경, 대중교통 순서로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웃관계, 지역환경, 치안 및 방법 순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청년층 역시 주거만족도의 상승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림 2> 비청년1인가구 모형 분석결과

V. 결론

본 연구는 1인 가구를 청년층과 비청년층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의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차이를 검토하고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통해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요인들이 청년 및 비청년층의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거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청년층의 경우 대중교통, 이웃관계, 지역환경, 치안및방법 요인이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청년층의 경우 이웃관계, 지역환경, 치안및방법 요인이 삶의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대중교통, 지역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층과 비청년층 모두 주거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주거만족도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주거문제는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거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다양한 주거환경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년층은 모든 요인들이 주거만족도가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청년층은 대중교통요인에서 완전매개효과, 지역환경요인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요인을 개선한다면 주거만족도 뿐 아니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만족도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를 통해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향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여러 지역에서도 청년들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소현,박정운. (2020). “결혼경험 유무에 따른 비혼 1인 가구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제24집 제1호.
2. 강현철. (2013).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합도지수의 해석과 모형적합 전략에 대한 논의.”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5권 제2호.
3. 국토교통부. (2022.06.13.)“2022주거복지로드맵“ <http://www.molit.go.kr/>
4. 김영주,곽인경. (2020).“청년 1인가구의 주거환경과 우울감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제4호.
5. 김진현,김형주. (2017). “1인 가구 특성이 주거유형 및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도시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6. 박미선,이재춘. (2013).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제1호.
7. 박성복. (2011).“노인의 주거관련 요인과 삶의 만족도.”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3호.
8. 박진호,김영순,양인선,조귀래. (2021). “1인가구의 주거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경남 인구30만 이상 시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19권 제4호.
9. 법제처. (2022.06.13.) <https://www.law.go.kr/>
10. 이현주,이수진,장유진,안옥희. (2020). “청년주택에 관한 청년세대의 의식 조사.”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제32권 제2호.
11. 이효재,지순,박매자. (1979). “한국 저소득층 노인생활에 관한 사회.” 『한국문화원 논총』 제34호.
12. 이희연,노승철,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46권 제4호.

13.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1호.
14. 임선미,이보영. (2016).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1호.
15. 정기성,김효정.(2018). “서울시 2030 직장인 1인 가구의 주거만족도와 주거환경요인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제16권 제1호
16. 정병호,정재호. (2015).“주거특성이 주거만족도와 주거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不動產學報(부동산학보)』 제63호.
17. 조미현,송재민. (2020). “서울 대도시권의 1인 가구 주거이동 및 유입지역 특성 분석:직업과 주택 요인을 중심으로.” 『國土計劃』 제55권 제4호.
18. 조주현,김주원. (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不動產學研究』 제16권 제4호.
19. 통계청. (2022.06.20.). “2020인구주택총조사” <https://www.kostat.go.kr/>
20.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9권 제1호.
21.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22. 황광선. (2013).“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주거환경과 주거만족 연구:주택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14권 제1호